한국청소년연구 제13호 1993 여름

고교생 또래문화의 지역간 차이에 관한 연구*

민 무 숙**

Ⅰ. 들어가는 말
Ⅱ. 연구방법
Ⅲ. 결과해석
Ⅳ. 결론

Ⅰ. 들어가는 말

1. 청소년문화의 집단간 차이 분석의 필요성

이제까지 이루어진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총체적·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감이 있다. 그러나 청소년에 대한 연구는 이제 총제적 접근에서 분석적 접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관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분석적 접근이란 청소년을 여러 범주/집단으로 분류하여 그들을 이해하고 나아가 모종의 대안을 제시하는 일도 집단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이 청소년을 집단별로 분석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청소년에 대한 많은 대규모의 조사연구가 있고 그러한 연구 보고서 내용 안에는 항상 조사 결과가 집단별로 분류되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분석들은 거의 조사 결과를 단순히 배경 변인 별로 통계 분석한 것들이지 집단간 차이를 문제의식이나 혹은 연구의 기본 틀로 삼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제시되는 수많은 배경변인들(남녀, 종교, 사회경제적 지위, 지역규모, 연령)간의 차이는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드는 지면의 할애 이상의 별 큰 의미를 부여받지 못한다. 때론 특정 집단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으로 연구가 수행되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사회에서 문제집단으로 여겨지는 비행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나 대학 미진학자에 대한 연구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이들이 사회 문제를 일으킨다고 보고 모종의 처치를 위한 정책 수립의 필요성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비행 청소년, 혹은 문제 청소년들을 포함하여 청소년 전체 집단에 대하여 기본적인 연구의 가정으로서 집단간 차이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일은 드물어 보인다.

* 이 연구는 한국가정발전연구소의 지원에 의하여 수행된 것임.

** 동국대학교 강사

청소년을 집단별로 분석하는 일이 왜 연구의 기본 관심으로 설정되어야 하는가? 집단별 분석의 필요성은 청소년이라 할 때 그들의 범위가 너무 크므로 세분해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단순한 규모의 문제 뿐만 아니라 그들이 처한 가정적 혹은 지역사회적 배경에 따라 그들은 상당히 다른 삶의 모습을 형성한다는 점에 그 근거를 둔다. 예컨대 대도시에 사는 청소년과 농촌에 사는 청소년, 부유한 집안에서 유복하게 자란 청소년과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 학비를 걱정하며 자란 청소년의 삶에 대한 태도나 모양은 결코 동질적이 아닐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을 단지 연령이 동일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동일한 '청소년문화'의 테두리 안에 두리뭉실하게 모두 포함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은 재고의 여지를 갖는다.

청소년의 사회적 지위획득과정이나 학업성취도를 설명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비판받고 있는 점 중의 하나는 그들이 집단간의 차이를 간과하였다는 점이다. 지위획득과정의 경로와 요인, 학업성취과정의 경로와 요인이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백인과 흑인이 다른데 그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하나의 모형으로 모든 집단을 설명하고 보편화시키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현상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할 뿐더러 나아가 현실을 왜곡시킬 소지도 안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왔다. 따라서 각 집단에 대한 독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Alexander et al., 1981). 이러한 점은 우리가 청소년문화를 연구·이해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비판이다. 우리의 경우 인종간의 차이는 없지만 그 외에 성별이나 사회경제적 지위, 또 지역적 환경 등으로 인한 차이가 청소년 문화의 여러 다른 모습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 집단 전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각기 다른 조건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의 독특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볼 때 집단별 분석의 일차적인 필요성은 청소년을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의 차이를 가져오는 가정적, 지역적 요인이 있다면 그러한 요인들이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러한 차이를 가져오게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도 이러한 집단별 분석이 요구된다. 그래야만 어떤 처치나 대응책이 있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집단 분석의 필요성을 연구의 기본 관점으로 삼고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또래 문화가 주거지역 – 대도시, 공단, 농촌지역 – 에 따라 어떤 모습을 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집단별 분석의 준거로 주거환경의 차이를 설정한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계층적 차이보다 지역요인의 차이가 더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연구은 청소년 문화에 대한 긍정·부정의 평가나 대안의 제시보다는 그것에 대한 이해를 위한 작업의 하나이다.

2. 청소년 또래 문화의 개념과 연구영역

일상적 용어로서 흔히 쓰이는 '문화'라는 말은 어떤 기준에 의하여 보다 발전된 것을 의미하는 '평가적 용어'와 어느 집단이나 각기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것을 의미하는 '기술적 용어'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김호권 외, 1985). 본 연구에서는 문화의 개념을 후자의 방식에서 파악하고 청소년 문화를 청소년 집단이 공유하는 특징적인 행동방식의 총체로 간주한다. 청소년 문화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내면적 사고까지를 파악해야 하지만 연구의 한계상 주로 외부로 드

러나는 청소년들의 행동만을 가지고 그들 문화의 성격을 추론하고자 한다. 행동은 내면에 자리잡고 있는 것을 상당부분 반영하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며 사는가'라는 질문을 통하여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그들이 누구인가'를 상당부분 추론할 수 있다고 본다.

청소년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들 개개인의 삶과 함께 그들이 어울려서 하는 것, 또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일이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가족 구성원들과의 접촉 기회보다는 주위 또래들과의 접촉 기회가 더 많으며 그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이 문제와 걱정이 생겼을 경우 교사나 가족 보다 친구와 의논하는 비율이 훨씬 높다는 것은 시대가 흘러도 변함없는 사실(김정휘, 1977 ; 정원식 외, 1985 ; 송광성 외, 1991)로 나타나는 것은 이 시기의 또래 집단의 영향력을 말해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살아가면서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새롭게 만들고 습득하며 그것의 가치를 나름대로 정당화하는 모든 행동 양식을 또래문화라고 볼 수 있다. 또래 집단은 그 친밀도의 깊이나 구성원의 수에 따라 흔히 2~9명의 짝패*cliques*나 15~30명의 대집단*crowd*으로 나누는데 본 연구에서는 반 급우들을 주 대상으로 그들의 행동방식을 조사한 것이므로 대집단의 개념에 보다 가깝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급우들을 중심으로 한 또래들과의 접촉,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행동 성향과 유형을 그들의 또래 문화로 규정하고 그것을 들여다 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청소년, 구체적으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부분적으로나마 이해하고자 한다.

고등학생들의 문화의 성격을 추론하기 위하여 살펴보아야 할 행동유형은 대단히 많다. 이 연구에서 그 모든 것을 할 수는 없으므로 기존의 연구가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하였다. 여기에서는 1) 집단활동, 2) 동료들간의 인기를 끄는 특성, 3) 급우들의 규범적 건전성에 대한 평가, 4) 성(性)문화, 5) 오락·유희적 행동의 다섯가지를 통하여 고등학생들의 문화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행동들이 생태적 환경인 거주지역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가를 알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관심이다.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또래 문화의 모습과 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들을 대상으로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과 조사도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지역환경이 다르다고 가정되는 대도시, 공단,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다. 이를 위하여 대도시 표본으로 중상류 계층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시 강남구를, 공단지역의 표본으로 경기도 부천시를, 농촌지역에는 경기도 포천군에 거주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임의 표집하였다. 〈표 1〉은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을 보여준다.

2. 조사도구의 구성과 내용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의 또래 문화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는 행동유형을 1) 집단활동, 2) 동료들간의 인기를 끄는 특성, 3) 급우들의 규범적 건전성에 대한 평가, 4) 성(性)문화, 5) 오락·유희적 행동의 다섯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표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지역	총수(명)	부의 학력분포 (%)					가정의 경제력 평가분포(%)				
		국졸	중졸	고졸	대졸	그이상	매우잘삼	잘삼	중간	못삼	매우못삼
부천	300	7.1	16.2	49.7	25.7	2.4	0.3	14.7	71.7	12.7	0.7
강남	300	2.0	3.0	17.8	59.6	17.5	0.7	41.9	48.0	8.4	1.0
포천	186	34.1	34.1	30.1	2.3	0.0	0.0	14.4	69.0	15.0	1.6

위의 다섯가지 영역에 대하여 세 가지 방식으로 질문지가 구성되었다. 첫번째는 본인들의 의견이나 해당사항에 대한 응답 문항이 있으며(주로 집단활동과 또래간 인기 내용), 두번째로는 특정 문항에 대한 자유응답 문항이 있다(모임의 내용). 이는 학생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또래 집단의 행동에 대한 빈도 평가 방식(향후에는 급우들에 대한 평가 방식으로 칭함)이 여러 영역에서 사용되었다(규범적 건전성, 성문화, 오락·유희적 행동). 질문 방식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자기 반 아이들 중 어는 정도를 차지하는가' 라는 형태를 취하였다(대부분 그렇다, 반아이들 중 절반 이상이 그렇다, 절반 정도이다, 절반보다 적다, 거의 그렇지 않다의 5단계). 이러한 질문 방식은 특정 행동을 하는 학생들의 정확한 비율을 알아내지는 못하지만, 본인에 관해 직접 질문할 때 보다는 보다 솔직한 응답을 기대할 수 있어 또래 집단의 전반적인 행동 유형을 유추하는데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활용되었다.

Ⅲ. 결과 해석

1. 집단활동 : 고교생들은 어느정도, 어떤 모임을 갖는가?

요즘의 청소년들은 입시위주 교육에 시달려 여럿이 모여 함께 활동을 할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집단 활동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이기적인 태도를 고칠 수 있고, 때로는 학업 이외에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또 그러한 관계 안에서 청소년들 나름의 독특한 또래 문화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고교생들이 어느정도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모여서 무엇을 하는 가를 알아보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표 2〉 조사영역과 내용

영 역	내 용
집단활동	• 모임 가입과 활동정도 • 모임의 내용
또래간 인기도	• 인기있는 남학생의 특성 • 인기있는 여학생의 특성
규범적 건전성	• 급우들의 일상생활의 규범적 건전성 평가
성문화	• 불건전 매체 접근 정도 • 이성교제 양식과 정도
오락·유희적 행동	• 오락적 장소 출입 정도 • 대중스타 동경행동

1) 서클/모임 가입과 활동 정도

다음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조사대상들은 서클이나 모임에 고정적으로 참여하

는 비율이 낮다. 전체 학생중 약 20%만이 서클에 가입하고 있는데 그 중 여학생들의 비율은 14.3%에 그치고 있어 남학생보다 소극적임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 보면 공단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율이며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낮은 비율이다.

〈표 3〉 참여 서클 유무 (단위 : %)

구 분	전 체 (627)	남 자 (294)	여 자 (328)		공 단 (246)	강 남 (253)	농 촌 (126)	
있 다	20.2	26.5	14.3	χ^2=14.37***	25.2	18.6	13.5	χ^2=7.76*
없 다	79.8	73.5	85.7		74.8	81.4	86.5	

* : p<.05 *** : p<.001 ( )의 수치는 응답자수

형식적인 서클 가입 여부 외에 실제적으로 어느정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가를 보면 사정은 더욱 좋지 못하다. 열심히 활동하는 학생의 비율은 반을 조금 넘는 54.2%에 불과하고 32.%는 마음내킬 때 나간다고 응답했으며, 가입은 했으나 거의 나가지 않는 학생도 13.2%나 되었다. 따라서 서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의 비율은 조사 대상 전체의 약 11%정도에 불과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여가 시간 중 모임에 할애하는 시간이 극히 적다는 선행연구들과도 일치하는 것이다(김영모, 1985 ; 정원식, 1985). 서클에 대한 참여와 활동 정도가 이렇게 낮게 나타난 주 요인은 조사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는 점도 있겠지만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의 모임과 활동에 대하여 그다지 지원적이거나 호의적이지 못한데서 오는 것이 아닐까 추론된다.

2) 모임의 내용

그러면 이들이 모여 주로 하는 모임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자유응답으로 하여 조사된 결과는 다음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이들의 모임의 성격을 분석한 결과 우선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었다. 한 유형은 학교나 외부 공공단체에 의해 공식적으로 조직된 써클에 참여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의 유형은 학생들 나름대로 모임을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다. 이런 비공식적인 모임은 그 성격상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하나는 모임의 목적이 비교적 건전하고 뚜렷한 형태로서 종교모임이나 스포츠 모임, 음악모임, 공부모임*study group* 등이 있다. 두번째 모임의 형태는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목적을 가지는 것들이다. 여기에는 돈을 모아 주로 비싼 외국 옷을 사거나 술, 담배, 음식 등을 먹는 일종의 계모임, 노래방을 가거나 미팅을 하거나 연예인에 대한 정보 교류를 하는 모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모임들은 상당한 정도로 어른들의 모임의 형태를 모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세번째 형태는 불량써클로서 패싸움이나 깡패모임이 있는데 이것은 소수이지만 세 지역 모두에서 나타났다.

지역별로 모임의 성격의 차이를 구별하기는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볼 때 모임의 종류는 강남지역이 가장 다양하게 나타났다. 공식적 모임이든, 비공식적 모임이든 강남학생들이 다른 지역 학생

들에 비하여 모임의 종류가 여러가지였다. 그 다음이 공단지역이고, 농촌지역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촌학생들은 양적으로도 모임의 참여비율이 낮을 뿐더러 질적으로도 모임의 내용이 단순하다는 것을 알 수있다. 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된 써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보다는 청소년들 나름대로 만든 모임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만든 모임은 자발적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위에 나타난 대로 자칫하면 별로 뚜렷한 목적없이 만났다 헤어지는 모임이 되거나 불량모임으로 흐를 소지도 안고 있다.

〈표 4〉 모임의 종류와 내용

지 역	공식적 모임	비공식적 모임		
		목적건전	목적 비건전	불량모임
공 단	사진, 보이스카웃, 종교, 합창	각종스포츠, 독서, 공부 토론, 여행, 봉사, 음악	연예인 팬클럽, 먹자계, 옷사기계, 당구	불량써클
강 남	학생회, 종교, 방송, 문예, 미술, 지리, 천체관측, 사진, 민속반, 탈춤반, 연극반, 우주소년단	공부, 음악, 각종스포츠, 만화, 토론, 산악, 봉사, 지점토	연예인 팬클럽, 먹자계,미팅모임, 담배모임, 노래방 모임, 노는 모임	패싸움(캉다쿠)
농 촌	보이스카웃, 동아리	공부, 음악, 글모임	술먹는 모임, 옷사는 모임	깡패(칼순이)

3) 불량서클 유무와 패싸움

건전 모임 이외에도 학교 내에 불량 서클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전체 응답자의 28.6%나 되는 학생이 학교내에 불량 서클이 있다고 답하였는데 지역간에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강남 지역의 학생들은 가장 적은 비율인 19.6%가, 공단 지역의 학생들은 28.5%가, 그리고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비율로 무려 43.5%가 학교안에 불량 서클이 있다고 답하였다. 농촌 지역에서 이렇게 높은 비율로 불량 서클이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이 연구에서 조사되지는 않았으나 다른 지역에 비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또 이러한 불량서클의 존재는 학생들간에 패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데 이미 앞에서 농촌 지역의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하여 반아이들중 패싸움을 하는 아이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표 6〉참조).

2. 또래간의 인기 : 교교생들은 어떤 아이를 좋아하는가?

청소년들 또래 집단 사이에 누가 인기를 누리는가를 알아보는 것은 청소년들이 그 시절에 가치롭게 여기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이다. 여기서 '누가' 라는 것은 특정인이라기 보다는 '어떤 특성을 지닌 아이인가' 라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질문은 청소년들은 어떤 아이를 좋아하는가? 라는 말과 같다.

또래간의 인기도를 알아보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1961년에 콜맨 Coleman에 의해 행해진 미국 고등학교 청소년에 대한 조사가 있다. 그는 일리

노이 주 내의 10개 고등학교의 청소년 문화활동을 조사한 결과, 미국 청소년들이 학업성취보다는 학교내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인기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남학생들은 스포츠나, 신체, 자동차 등이 주 관심이 있으며, 여학생들은 아름다움이나, 성적매력 같은 것에 가치를 높게 부여하고 있었다. 콜맨은 학업성취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고 그 외에 신체적·외적 매력을 또래 집단에서 높이 평가하는 이러한 미국 청소년들의 문화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특히 그는 이러한 문화가 남녀분리 학교보다는 남녀공학 학교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발견하고 공학학교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재고해야 함을 지적하였다(Coleman, 1961 : 51). 그의 연구는 80년대에 들어서 리와 부릭 Lee & Bryk(1986)에 의해 검증된 바 있고, 뉴질랜드에서도 존스Jones와 그의 동료들(1972)에 의해 지지되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으로 하여 종종 청소년 문화의 특성의 하나로 쾌락주의를 꼽는 견해가 많다(함종한, 1987 : 150 ; 정하성, 김광수, 1987 : 41). 그러나 이러한 결론은 어디까지나 외국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 관한 것이므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특성을 이와 동일시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

1) 인기있는 학생의 특성

그렇다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인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사이에는 어떤 특성을 가진 여학생/남학생이 인기가 있을까? 조사 결과 남녀를 불문하고 성격이 좋은 학생이 또래간에 가장 인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여학생의 특성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64.9%가, 남학생의 특성에 대하여는 64.5%가 응답하였다. 성격이 원만한 학생이 남녀를 막론하고 가장 호감을 산다는 이야기로서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는 가치관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2순위 부터는 인기있는 여학생과 남학생의 특성이 달라진다. 전체 응답자의 54.8%가 얼굴이 예쁜 여학생이 인기있다고 응답해 여학생은 외모가 2위를 차지했으나 남학생의 경

〈표5〉 인기 있는 학생의 특성

(N=792) (단위 : %)

항 목	여학생의 특성			남학생의 특성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공부 잘 하는 아이	10.2(4)	6.4	13.1	16.0(5)	11.0	20.9
부자집 아이	4.2	5.3	3.0	7.8	3.9	11.2
얼굴이 예쁜 아이	54.8(2)	86.4	30.4	43.5(3)	25.2	61.1
운동을 잘 하는 아이	2.8	1.3	3.7	26.5(4)	21.0	31.6
힘센 아이	1.8	1.3	2.2	7.9	7.4	8.2
성격 좋은 아이	64.9(1)	48.2	77.4	64.6(1)	61.5	67.2
미술이나 음악을 잘 하는 아이	8.8(5)	8.3	9.0	8.6	5.5	11.6
아이돌을 재미있게 하는 아이	44.8(3)	16.3	65.9	51.8(2)	56.8	46.9

주 : 복수 응답이므로 전체 합계가 100%를 넘음

( )의 수치는 5위까지의 빈도수 순위

우에는 주위 아이를 재미있게 하는 아이가 응답자의 51.8%를 차지해 유머있는 남학생이 2위를 차지했다. 그에 따라 3위는 여학생의 경우 유머있는 아이가, 남학생의 경우 얼굴이 잘 생긴 아이가 각기 차지했다. 4위는 여학생의 경우 공부 잘하는 학생이 인기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남학생은 운동을 잘하는 학생이 인기있었다. 공부잘하는 특성은 남학생의 경우 5번째로 나타나 여학생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외 가정의 경제력이나 신체적 힘, 예능 방면의 소질 등은 낮은 빈도를 나타냈다.

2) 성별 및 지역 차이

그런데 이러한 응답을 한 단계 더 들어가 남녀를 구분하여 살펴 보면 보다 재미있는 해석이 나온다. 즉 성별에 따라 인기있는 학생의 특성에 대하여 상반된 응답을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예컨대 인기있는 여학생의 특성에 대하여 여학생들 본인들은 성격과 유머를 제일 높은 빈도로 꼽는 반면(77.4% 와 65.9%) 남학생들은 여학생의 외모를 단연 제일로 꼽고(86.4%) 그 다음으로 성격을 지적했다 (48.2%). 여학생들 자신들이 외모를 꼽은 빈도는 30.4%에 불과했다. 인기있는 남학생의 특성에 대한 응답에서도 이러한 현상은 나타난다. 즉 남학생 자신들은 성격과 유머를 가장 높은 빈도로 응답한 반면(61.5%와 56.8%) 여학생은 남학생의 성격(57.5%) 다음의 높은 빈도로 외모를 지적했다(61.1%).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이 동성에 대하여는 성격이나 유머 등 심성적 측면을 중시하지만 이성에 대하여는 외적인 매력을 상당히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콜맨의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것이며, 또 심리적 성숙도와 안정도가 또래 집단내 인기를 끄는 요인이 된다는 견해(윤진, 1988 : 186)가 이성보다는 동성의 경우 더 적절한 해석임을 보여준다.

또래간의 인기있는 학생의 특성이 지역에 따라 차이있는 항목이 많지는 않았다. 단지 농촌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에 비하여 공부잘하는 아이의 인기도를 낮게 평가하였으며, 남학생의 특성 중 힘센 아이의 인기도를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게 평가하였다. 농촌지역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이유는 이들의 가정의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아(가정의 경제형편에 대한 인지도, 부모의 학력 문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이 적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또 이들 아버지의 반수 정도가 농업에 종사한다는 환경적 요인이 이들로 하여금 신체적 힘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환경이나 부모의 (특히 아버지의) 직업이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일 때 그 자녀들은 정신적 노동의 가치보다는 신체적 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여러 연구들(Clarricoates, 1980 ; Willis, 1977)을 통하여 알려진 바이다. 실제 본 조사에서 힘이 약한 아이를 우습게 보는 반 아이들의 비율을 묻는 문항에 대하여 농촌 지역 학생들이 다른 지역의 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6〉 참조).

3. 규범적 건전성 : 청소년들은 규범을 얼마나 지키는가?

청소년들이 자기 또래 집단의 규범적 건전성을 어떻게 평가하는 가는 이들의 인지 성향을 알아보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로 대표적인 것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에서 1985년에 발표한 청소년의 의식구조 조사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국민학교 부터 대학교 학생 연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결과 우리 청소년들은 동년배 집단이 규범적으로 그다지 건강하다고 보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용돈을 턱없이 많이 쓰는 아이, 친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돕는 아이, 힘 약한 친구를 우습게 보는 아이, 공부에 영 취미가 없는 아이, 패싸움을 하는 아이 등 5가지를 질문하였다. 이러한 행동들은 일상 생활에서 사소한 것 처럼 보이는 규범들을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지키는지를 보여준다. 질문 방식은 급우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 방식을 취하였다.

〈표 6〉 규범적 건전성

(단위 : %)

구 분	거 의 없 다	절반보다 적 다	절반이 그렇다	절반보다 많 다	대부분이 그렇다	
용돈 많이 쓰는 아이	40.1	48.8	6.7	3.6	1.3	
공단(295)	45.1	47.5	4.7	2.0	0.7	$\chi^2=13.71$*
강남(298)	35.9	51.9	7.1	4.1	1.0	
농촌(189)	38.8	45.9	9.3	3.3	2.7	
손해봐도 친구 돕기	56.7	34.2	5.9	1.9	1.3	
공단(295)	54.5	37.5	6.4	0.7	1.0	$\chi^2=48.77$***
강남(298)	66.4	29.9	2.3	1.0	0.3	
농촌(189)	45.0	36.0	10.6	5.3	3.2	
힘 약한 친구 깔보기	50.4	36.1	7.0	4.1	2.4	
공단(295)	58.2	35.8	2.3	2.3	1.3	
강남(298)	50.8	35.4	8.1	3.4	2.4	$\chi^2=41.97$***
농촌(189)	37.6	37.6	12.7	7.9	4.2	
공부 취미없는 아이	19.2	46.0	20.5	9.0	5.2	
공단(299)	21.1	49.8	20.7	5.4	3.0	
강남(299)	25.4	48.5	14.7	9.0	2.3	$\chi^2=80.91$***
농촌(189)	6.9	36.0	29.1	14.8	13.2	
패싸움을 하는 아이	80.8	15.3	2.3	0.8	0.9	
공단(299)	89.6	9.7	0.7	0.0	0.0	
강남(285)	84.2	12.1	1.7	1.0	1.0	$\chi^2=68.04$***
농촌(189)	61.4	29.1	5.8	1.6	2.1	

* : $p<.05$, *** : $p<.001$, ( )의 수치는 응답자수

〈표 6〉에 나타난 것처럼 '반 아이들 중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아이는 거의 없다'에 답한 응답자는 모든 항목(패싸움 문항 제외)에서 반수 내외를 차지하였다. 즉 적지 않은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소한 규범들을 어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그

들에게 그다지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면, 용돈 문제에 대하여는 강남 지역 학생이, 친구간의 의리와 신체적 힘을 중시하는 경향은 농촌 지역 학생이 각각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강남 지역 학생이 아무래도 여유가 있을 것은 자명한데(가정의 경제형편에 대한 인식에서도 제일 높다) 재미있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용돈을 턱없이 많이 쓰는 학생이 있다고 평가한 점이다. 농촌 지역 학생이 친구간의 의리를 지키는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비교적 높게 나와 아직까지 도시에 비하여 농촌의 인심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손해를 보더라도 친구를 돕는 학생은 적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이기주의적인 성향을 보여주었다.

공부에 대하여는 상당수의 아이들이 흥미없다고 보았다. 반 아이들 중 절반이 그렇다고 본 비율이 20.5%에 달해 학교 교육의 문제를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결과이었다. 지역별로는 농촌 학생이 가장 심하고, 공단 지역 학생, 그리고 강남 지역 학생의 순이다.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의 가능성이 적은 순서와 일치한다.

패싸움을 하는 아이도 소수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특히 농촌 학생들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패싸움의 경우 불량서클이 이 지역에 많은 것으로 응답 (Ⅲ장 참조)한 결과와 연관된다.

4. 성(性)문화 : 고교생들은 불건전한 매체를 어느 정도 접촉하고 있으며, 이성친구는 어떻게, 어느정도 사귀는가?

고등학생의 시기에는 이성에 대한 관심이 클 뿐 아니라 때로는 그것이 적극적인 행동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성(性)문화는 성에 대한 정보 획득 방식, 성에 대한 태도, 성행동 등 다양한 영역들 통하여 살펴볼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해소하는 방법인 불건전 매체의 접촉 정도와 이성과 어울리는 정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것도 급우들의 행동에 대한 평가 방식을 사용하였다.

1) 불건전 매체에의 접촉도

성적 호기심을 해소하거나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청소년들에게는 부적합한 컴퓨터 오락, 성인용 주간지, 음란 비디오 등을 어느 정도의 아이들이 접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7〉에 나타나듯이 상당수의 학생들이 이러한 매체에 접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성인용 주간지나 음란 비디오를 보는 학생이 반 아이들 중에 거의 없다고 답한 학생이 전체의 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을 불건전한 매체에 단순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런 매체에 청소년들이 접근하는데 있어 지역간에 큰 차이가 없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2) 이성교제의 양태

우선 이성교제의 방법으로 최근 청소년들에게 확산되고 있는 미팅과 폰팅(전화를 통해 만나는 방식)을 학생들이 어느 정도 경험하고 있는 지를 보았다. 그 결과 상당수가 이미 미팅이나 폰팅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팅은 반 친구들 중 반 정도가 한다로 대답한 학생이 1/5이 넘었으며, 폰팅도 동일 응답이 16%가 넘었다. 이것은 예전의 고등학생이라면 생각하기 힘든 미팅이나 폰팅이 이성을 사귀는 하나의 경로로 등장했음을 말

〈표 7〉 불건전 매체접근도

(단위 : %)

구 분	거 의 없 다	절반보다 적 다	절반이 그렇다	절반보다 많 다	대부분이 그렇다	
청소년에게는 적합지 않은 컴퓨터 오락	61.2	29.3	5.7	2.8	1.0	
공단(298)	63.8	29.2	4.4	1.7	1.0	$\chi^2=5.98$
강남(292)	58.6	29.5	6.5	4.1	1.4	
농촌(185)	61.1	29.2	6.5	2.7	1.4	
성인용주간지 보기	47.8	27.8	11.3	8.0	5.1	
공단(300)	49.3	28.7	10.8	7.3	4.0	$\chi^2=12.96$
강남(297)	41.8	29.3	11.8	9.8	7.4	
농촌(188)	54.8	23.9	11.7	6.4	3.2	
음란비디오 보기	47.3	30.3	9.6	7.7	5.2	
공단(299)	45.8	35.5	8.0	6.0	4.7	$\chi^2=15.84^*$
강남(297)	46.1	23.1	11.1	10.8	6.7	
농촌(187)	51.3	29.9	9.6	5.3	3.7	

* : $p<.05$, ( )의 수치는 응답자수

해주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공단지역 학생들이 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강남지역 학생들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지역은 지역의 보수성으로 미팅이나 폰팅이 다른 지역보다는 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미팅이나 폰팅의 결과 이성 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반 아이들의 비율에 대한 질문에서도 공단지역 학생들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 이 지역의 특수성을 보여주었다. 조사 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우리나라의 치열한 입시경쟁 풍토를 감안해 볼 때 이러한 비율은 상당히 적극적인 이성교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성경험에 대한 문항에서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이성친구들과 어울리는 정도가 가장 높은 공단지역 학생들의 성경험 비율은 가장 낮고, 반대로 농촌 지역 학생들의 성경험 비율은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왔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이성교제에 대해 허용적이고 만날 수 있는 공개적인 장소(음식적, 공원)가 많지만, 그에 비해 농촌은 보수적이고 좁은 지역환경 때문에 공개적인 교제보다는 폐쇄적이고 은밀한 교제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정지웅, 1977). 이러한 해석은 본 연구 조사결과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농촌 학생들이 외견적으로 보이는 이성과의 교제 빈도는 낮게 나타나는 반면 성경험의 비율은 높게 나타난 것이 그러하다. 농촌지역의 학생들이 대도시 지역의 학생들에 비하여 성경험 비율이 높다는 점은 다른 연구에서도 조사된 바 있다(김영모, 1985).

5. 오락 · 유희적 행동

흔히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건전한 놀이나 쉽게 가서 자유로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이 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그러한 놀이나 공간의 부

〈표 8〉 이성교제의 양태

(단위 : %)

구 분	거 의 없 다	절반보다 적 다	절반이 그렇다	절반보다 많 다	대부분이 그렇다	
미팅 하는 아이	15.2	45.4	21.9	12.2	5.3	
공단(300)	4.3	33.0	34.7	19.3	8.7	χ^2=130.73***
강남(298)	20.1	58.4	11.1	7.4	3.0	
농촌(189)	24.9	44.4	18.5	8.5	3.7	
폰팅하는 아이	24.6	45.8	16.6	8.7	4.2	
공단(297)	20.5	44.1	20.2	10.8	4.4	χ^2=26.05**
강남(298)	31.5	48.0	10.7	7.0	2.7	
농촌(188)	20.2	45.2	20.2	8.0	6.4	
이성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아이	14.4	61.4	17.7	4.7	1.8	
공단(297)	8.1	63.3	22.9	4.4	1.3	χ^2=31.22***
강남(299)	18.1	64.2	13.0	3.0	1.7	
농촌(188)	18.6	53.7	17.0	8.0	2.7	
성경험이 있는 아이	78.0	17.5	2.6	.9	1.0	
공단(298)	86.9	11.7	1.0	.3	.3	χ^2=52.26***
강남(295)	78.6	18.3	1.7	.3	1.0	
농촌(186)	62.9	25.3	7.0	2.7	2.2	

** : p<.01, *** : p<.001, ( )의 수치는 응답자수

족은 결국 그들을 건전하고 창조적인 활동보다는 단순하고 오락추구적인 활동으로 시간을 소비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오락적인 장소에 어느정도 출입하는 가와 대중 스타를 어느 정도 동경하고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문화의 단면을 살펴본다.

1) 오락적 장소에의 접근도

다음 〈표 9〉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당수의 고등학생들은 단순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장소로 여겨지는 오락실이나 카페, 노래방 등을 애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락실 출입은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자주 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종래의 여러 연구에서도 전자오락실은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2/3정도가 출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도종수 외, 1990). 이러한 높은 비율은 전자오락실 출입이 규범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청소년들의 하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해석된다.

카페나 노래방 역시 이미 그들이 즐겨 가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카페는 응답자의 14.4%가, 노래방은 18.7%가 반 아이들의 절반이 간다고 답하였다. 디스코장은 이에 비하여 그 비율이 훨씬 떨어져 2.8%로 나타났다. 카페나 노래방에 가는 학생이 거의 없다라고 답한 학생은 각각 37.4%와 27.2%에 불과하였다. 농촌 지역 학생들이

오락실 출입 정도가 낮고 강남 지역 학생들이 노래방이나 디스코장에 가는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경제적 여유도 있고 주변 환경에 이런 장소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9〉 오락적 장소 접근

(단위 : %)

구 분	거 의 없 다	절반보다 적 다	절반이 그렇다	절반보다 많 다	대부분이 그렇다	
오락실 자주 가는 아이	14.5	36.5	23.5	15.1	10.2	
공단(295)	7.0	37.3	25.7	16.3	13.7	$\chi^2=60.06^{***}$
강남(298)	23.7	27.5	21.4	16.6	10.8	
농촌(185)	12.8	49.5	23.4	10.6	3.7	
카페 가는 아이	37.4	44.0	14.4	2.7	1.6	
공단(299)	25.1	47.8	22.1	3.7	1.3	$\chi^2=46.74^{***}$
강남(299)	43.5	44.5	8.7	2.0	1.3	
농촌(189)	47.1	37.0	11.1	2.1	2.6	
노래방 가는 아이	27.2	46.4	18.7	5.4	2.2	
공단(300)	27.7	50.7	17.7	3.7	.3	$\chi^2=27.03^{***}$
강남(298)	26.5	38.6	23.5	7.4	4.0	
농촌(189)	27.5	51.9	12.7	5.8	2.1	
디스코장 가는 아이	75.4	20.1	2.8	1.3	.4	
공단(297)	83.2	13.5	1.7	1.7	.0	$\chi^2=22.94^{**}$
강남(298)	68.5	26.8	3.0	1.0	.7	
농촌(185)	74.1	20.0	4.3	1.1	.5	

** : $p<.01$, *** : $p<.001$, ( )의 수치는 응답자수

2) 대중 스타 동경 행동

오늘날의 청소년 문화가 예전과 다른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이들의 연예인에 대한 강한 지향이다. 인기 가수나 탤런트, 개그맨 등이 나오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종종 볼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연예인에 대한 관심은 과히 열광적이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대중스타에 대한 동경의식과 행동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별로 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연예인을 동경함으로써 비롯되는 행동을 소극적 행동과 적극적 행동으로 나누어 그 발생 정도를 살펴보았다. 소극적 행동이란 연예인을 좋아하기는 하나 비교적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연예인의 사진을 소지하는 행동과 연예인의 말투나 모습을 흉내내는 행동이 포함되었다. 적극적 행동이란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예인에게 편지나 전화를 하는 행동, 연예인을 보기 위해 방송국이나 콘서트에 가는 행동, 뮤직 비디오 클럽에 가입하는 행동 등이 여기에 포함되었다. 이러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자기 반 아이들 중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를 질문하였다.

〈표 10〉 연예인을 동경하는 행동 (단위 : %)

구 분	거 의 없 다	절반보다 적 다	절반이 그렇다	절반보다 많 다	대부분이 그렇다	
연예인 사진 소지	9.8	25.5	21.8	16.9	25.9	
공단(298)	8.7	25.8	24.2	13.8	27.5	χ^2=18.51**
강남(297)	10.4	27.9	20.9	21.2	19.5	
농촌(188)	10.6	21.3	19.7	14.9	33.5	
연예인 흉내내기	46.3	42.3	8.4	2.7	1.5	
공단(299)	44.8	43.5	9.4	1.7	.7	
강남(298)	46.8	41.1	9.4	2.7	1.3	χ^2=8.93
농촌(188)	42.9	42.3	7.4	4.2	3.2	
편지나 전화하기	67.4	29.1	2.2	1.0	.3	
공단(298)	68.5	27.9	3.4	.3	.0	
강남(300)	60.0	35.7	1.7	2.3	.3	χ^2=27.65***
농촌(188)	77.7	20.7	1.1	.0	.5	
방송국·콘서트 가기	54.4	41.9	3.0	.6	.0	
공단(298)	54.4	41.3	4.0	.3	.0	
강남(300)	38.0	57.3	3.3	1.3	.0	χ^2=87.48***
농촌(189)	80.4	18.6	1.1	.0	.0	
뮤직비디오 클럽에 가입한 아이	84.9	13.3	.8	.9	.1	
공단(297)	84.2	14.8	.3	.7	.0	
강남(292)	83.2	15.8	.3	.7	.0	χ^2=19.18**
농촌(177)	88.7	6.8	2.3	1.7	.6	

** : p<.01, *** : p<.001, ( )의 수치는 응답자수

조사 결과 우리 고등학생들의 상당수는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으며 또 그들의 흉내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10〉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 두장 정도의 인기 연예인의 사진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21.8%가 '반아이들 절반이 사진을 소지한다'고 응답하였고, '대부분이 그렇다'고 한 학생도 25.9%나 되었다. 이런 응답 결과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의 사진 소지가 그 또래간에 유행하는 행동 특성임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연예인의 말투나 머리 모습 등을 흉내내는 비율은 훨씬 떨어지는데 이것은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어서 학교의 생활지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반 정도의 학생이 '절반보다 적다'와 '절반이 그렇다'에 응답한 것으로 보아 연예인의 흉내를 내는 학생도 상당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좋아하는 연예인에게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학생의 수는 많지는 않으나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편지나 전화, 방송국이나 콘서트 가기, 뮤직 비디오 클럽에 가입하기의 세

가지 행동 중 가장 많이 하는 것은 연예인을 보기 위해 방송국이나 콘서트에 가는 것이다. 이것은 일 대 일의 접근이라 할 수 있는 편지쓰기나 전화하기보다 심리적으로 용이한 데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지역별로는 흉내내는 정도는 모든 집단에서 비슷한 정도이며, 사진 소지 빈도는 농촌 지역 학생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행동을 하는 정도는 강남 지역 학생들이 가장 높고 농촌 학생들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였다. 이러한 차이는 문화적, 지리적 여건에 있어서 강남 지역 학생들이 연예인에게 접할 기회가 많은 반면, 농촌 지역 학생들은 그 기회가 훨씬 적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그 보상의 방법으로 많은 농촌 학생들이 연예인의 사진을 소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Ⅳ. 결 론

본 조사 연구 결과를 통하여 나타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주거지역에 따른 또래문화의 차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강남 지역의 학생들의 또래문화는 공부도 하지만 놀기도 부지런히, 여러가지로 하는 문화라 볼 수 있다. 이들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오락적 장소에도 많이 가고, 연예인에 대한 접근도 적극적으로 하는 등 그들의 활동 반경이나 양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좀 더 다양하게 보인다. 자신들이 만들거나 참여하는 모임의 종류도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하여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이 노는 데만 치중하는 것은 아닌 듯 하다. 공부에 취미가 없는 학생들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강남 지역 학생들의 이러한 특징은 그들의 여유있는 가정형편과 지역적 여건이 함께 작용한 결과로 파악된다. 그들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문화적 시설이 좋은 곳에 살고 있고 학력이 높은 부모와 좋은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 실제 그들 자신이 용돈을 턱없이 많이 쓰는 학생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강남 학생들은 부모의 덕택으로 공부와 놀이(그것의 성격이 어떠한 것이던) 양편 모두에 있어 상대적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본 조사에서 나타난 농촌 지역 학생들의 문화는 상당히 단순하고 때로는 비사회적인 모습을 보인다. 이들은 다른 집단에 비하여 활동 반경도 좁고 내용이나 모습도 단순하게 나타난다. 지역적으로 문화적 시설이 열세한 탓으로 이들은 연예인을 가까이 보러 가기도 힘들고 이성친구를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는 미팅이나 폰팅도 별로 하지 않는다. 그들 자신이 만드는 모임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다. 이렇게 활동이 별로 많지 않으면서도 이들은 학교나 사회의 규범에 잘 적응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학교 공부에 취미가 영 없는 학생, 신체적인 힘을 중시하는 학생, 그리고 패싸움을 하는 학생의 비율이 다른 지역 학생에 비하여 높고 학교내에 불량서클도 많다. 성경험의 비율도 높게 나타난다. 농촌 학생들의 이러한 행동특성을 볼 때 이들은 강남 학생들 처럼 자신들의 놀이거리도 많이 없으면서 학교생활에도 그다지 재미를 붙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농촌학생들이 학생의 신분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여겨지는 비사회적인 행동들도 하는 위험성을 보이게 되는 것도 그러한 그들의 단순·무재미한 문화 탓이라 추론된다.

농촌 학생들이 이러한 특성은 농촌이 도시와는 다른 지역적 환경에 의해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지적되었듯이 농촌사회의 위축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지위의 하락, 문화적 시설의 열세, 정보부족으로 인한 진로선택의 어려움 등 농촌학생들은 여러가지 여러 불리한 환경에 살고 있다(이상하, 1990). 그러한 요인들이 농촌 학생들을 놀지도 공부하지도 못하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며, 그러한 어쩡쩡한 상태가 그들을 때로는 비사회적인 모습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다.

강남지역 학생이나 농촌지역 학생에 비하여 공단지역 학생들은 뚜렷한 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 단지 이들이 이성친구들과 어울리는 정도가 훨씬 높다는 점이 다른 지역과 차별되어 나타나는 특성이다. 미팅이나 폰팅을 하는 학생들, 이성친구들과 자주 어울리는 학생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와 흥미롭다. 그러나 그러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이 연구에서는 찾기 어렵다. 공단 지역의 어떤 사회적 환경이 이 지역의 고등학생들의 이성교제를 활발하게 하는지 그 요인은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진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등학생 문화의 지역간의 차이는 본 연구의 조사 지역과 표본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거환경이 확연히 다른 이 세 지역의 학생들은 같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라 하더라도 결코 동질집단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의 서두에서 강조하였듯이 이제는 청소년 집단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연구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분석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주거환경의 어떤 요인이 이떤 경로를 통하여 문화의 차이를 가져오는지 본 연구에서 면밀히 조사되지는 못하였다. 그를 위해서는 행동유형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에 대한 자신들의 평가, 생각까지도 면접이나 관찰을 병행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적 요인에 의한 차이 이외에도 우리는 본 조사를 통하여 고등학생들의 또래 문화가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만들기보다는 어른들이 만드는 부정적 문화에 의해 상당 부분 침식당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받을 수 있다. 그들끼리의 집단활동과 관계를 통하여 창조적인 문화를 형성하는 청소년의 수는 적은 듯 하며 상당수가 어른들에 의해 만들어진 여러가지 불건전한 매체에 노출되고 있거나 이들을 겨냥하여 만드는 어른들의 상업문화의 소비자가 되고 있다. 또 그들이 만드는 모임의 성격도 어른들의 행태를 모방한 것들이 눈에 띄고 있다. 그들은 이중적인 희생자라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그들 나름의 문화를 갖지 못하고 어른들의 상업적 문화에 이용당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행동들에 대하여 어른들로 부터 계속적으로 비난받는 이중성을 띤다. 이것은 어른들이 청소년의 건전한 또래 문화의 부재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 자신의 문화를 걱정해야 함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영모(1985), 청소년의 욕구 및 지도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맹 부설 한국청소년연구소.

김정휘(1977), 현대 청년심리학, 학문사.

김호권, 이돈희, 이홍우(1986), 현대교육과정, 교육출판사.

도종수, 이광호, 임상숙, 김영아(1990), 청소 유해환경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송광성, 이종원, 김범준, 김하연(1991), 한국 청소년의 실태와 문제, 한국청소년연구원

이상하(1990), 농촌 청소년 문제의 보편성과 특수성, 청년연구, 제13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pp.3-15*.

윤 진(1988), 동년배간의 우정관계, 이춘재 외, 청년 심리학, 중앙 적성 출판사, pp.177-200.

정원식 외(1985), 청소년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정지웅(1977), 농촌 청소년의 문제와 교육, 진원중 편, 사회교육의 동향과 좌표, 배영사, pp. 197-20*.

정하성, 김광수(1987), 청소년 윤리, 백산출판사

함종한(1987), 청소년 : 교육심리학적 접근, 상조사

Aalexander, K., Eckland, B.K. & Griffin, C. J. (1981). "The Wisconsin model of socioeconomic achievement : a replic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1, (2) 324-342.

Clarricoates, K. (1978). "The Importance of Being Ernest... Emma... Tom... Jane. : The Per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Gender Conformity and Gender Diviation in Primary Schools." In R. Deem (Ed.), *Schooling for Women's Work*. London : RKP. pp. 129-1*1

Coleman, J.S. (1961), *The Adolescent Society*, NY : Free Press of Glencoe.

Jones, J.C., Shallcrass, J., & C.C. Dennis (1972), "Coeducation and Adolescent Values", *Journal of Psychology* 63(4), pp.334-341.

Lee V. E. & A.S. Bryk (1986), "Effects of Single-Sex Secondary Schools on Student Achievement and Attitud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8(5), pp.381-395.

Willis, P.(1977), *Learning to Labor*. Hampshire, England : Grower Publishing House.